

거울처럼 텅빈 마음에 만물 비치네

“거울속에서 뉘모습 보았나
돌짜기서 내소리 들리네
보고 듣는 것에 미혹 않으면
어느곳인들 트인길 아니리”

-진각국사 오도승-

‘제법(諸法)은 환(幻)과 같고 열(焰)과 같고 수중월(水中月)과 같고 경중상(鏡中像)과 같다.’

대승십유(大乘十喻)의 하나이다. 불교에서는 제행무상도 제법무야도 모두 거울에 비친 상과 같다고 비유한다. <화엄경>에도 ‘시방(十方)에는 모든 변화가 있으니 일체는 거울 속의 상(像)과 같다’라는 경구를 통해 제법이 실체가 없음을 거울에 비친 상으로 비유하고 있다. 또 마음을 거울에 비유해 거울이 삼라만상을 비추어내듯이 마음에 부처님을 비추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마음에 중생만을 비추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물들어 버린다고도 했다. 많은 선사들 역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해 부처리히 닮아야 티끌이 묻지 않는다고 수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업경대

저승에는 인간이 이승에서 지은 죄를 그대로 비춰 보여주는 거울 업경대가 있다. 업경대에 나타난 죄의 경중을 따져 어떤 지옥에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업경대는 업경륜(業鏡輪) 업경(業鏡)이라고도 한다. 저승에서 죽은이들의 죄를 심판하는 시종 중에 열라대왕이 업경대를 사용한다.

업경대는 지장전이나 사찰전에 설치되는데 간혹 대웅전 등 다른 전각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나무로 제작하는 거울 주변에는 불꽃문양을 사실적으로 나타내 저승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법당 안에 있는 업경대는 악령을 쫓기라고 선형을 황으라는 경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에서 전달받은 팔면보경을 봉안했다는 데서 사찰 이름이 유래한 보경사(경복궁 영일궁).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저승에 가면 생전의 선 악업이 그대로 비추어진다는 업경대. 죄를 짓고 선행을 하라는 경책을 담고 있다. 해인사 명부전 시왕행화중 열라대왕도(부분), 1742년작.



○경남 하동서 출토된 고려 경상. 비로자나 삼존불이 그려져 있다.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라고 분부한다. 가장 뛰어난 제자로 인정받던 신수(606~706)대사는 ‘몸은 보리나 나무요/마음은 밝은 거울이니/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라’는 계승을 쓴다. 이 계승을 들은 육조 혜능대사(638~713)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명경도 본래 경대가 아니다/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어찌 먼지를 떨 필요가 있으랴’는 계승을 신수대사의 계승 바로 옆에 써 놓는다. 혜능대사는 이 계승 덕에 홍인대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법맥을 잇게 된다.

스승인 화양산사(677~744)를 처음으로 만났



○세모양의 거울에 양귀관을보살을 새긴 거울. 14세기 고려작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마음에 부처님 비추면 부처님 보고 마음에 중생 비추면 삼독심 물들어

거울에 비친상 실체없어 '제행무상'에 비유

■경상(鏡像)

거울에 수일관음도 등 상보를 새긴 경상은 거울을 법신의 현현으로 보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마음의 표현이다. 중국이나 일본에 많이 남아있는 경상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현존 경상은 거울면에 직접 도상(圖

像)을 새긴 동경선각경상(銅鏡線刻鏡像)과 동경의 형태로 주물(鑄物)한 동판 표면에 도상을 새긴 주동판도석선각경상(鑄銅板道石線刻鏡像)의 두 종류가 있다. 동경선각경상은 3점이 있는데 두점은 송에서 전래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고려적인 무문경(無文鏡)이다. 무문경은 고려 경상 가운데 유일하게 출토지가 알려진 거울로 1918년 경남 하동군 화계면 부촌리사지에서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남아있다. 병경의 앞면에는 비로자나삼존불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9층독탑이 새겨져 있다.

13점이 발견된 주동판도석선각경은 관음도 거울의 유형기에 대량생산된 것인데 양식적으로 모두 고려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준재관음, 채수관음, 해수관음, 양귀관을 등이 비사문전, 공작명왕 등과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사들과 거울

육조 혜능 오조 홍인대사(594~674)는 법통을 물려줄 제자를 찾기 위해 제자들에게 계승을 지으

을 때의 말이다. 화양산사는 마조(709~788)가 오로지 좌선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자 그 앞에서 벽을 하나를 바위에 걸기 시작했다. 거울을 만들기 위해 벽을 건다는 화양산사에게 마조는 벽을 거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에 화양산사는 “벽을 깎아 거울을 만들 수 없을진데 하물며 좌선만을 한다고 어찌 성불할 수 있겠나”고 물음을 던지고 그 순간 마조는 깨달음을 얻는다.

진각국사 스승 자룡선사 말을 떠나 있다 돌아온 진각국사 해심스님(1178~1234)은 제자의 기량을 시험하고자 하는 스승에게 거울에 먼지가 끼면 아무것도 비출 수가 없기에 거울을 닦았다고 말한다.

이렇듯 해심스님은 경성의 화두를 거울로 삼고 있다. 스님은 오도승으로 ‘거울 속에서 뉘 모습 보았나/돌짜기서 내 소리 들리네/보고 듣는 것에 미혹되지 않으면/어느 곳인들 트인 길 아니리’를 남기고 있다.

백운화상 고려 때 유명한 선사 백운화상(1299~1375)은 ‘밝은 해도 밤은 비추지 못하고/밝은 거울도 뉘모습은 못 비추어라/어찌 내 마음 원을 명백하여/항시 고요하게 비출

수 있으랴’는 계승을 남겨 거울이 자기와 뉘모습을 비추지 못하는 것을 자각의 어려움으로 표현했다.

천태 지의 천태 지의대사(538~597)는 <마하지관>에서 삼계(三諦)의 원융함을 거울에 비유하여 ‘비유컨대 밝은 거울과 같다. 거울의 밝음은 공(空)에 비유되고, 거울에 맺힌 상(像)은 가(假)에 비유되며, 거울 자체는 중(中)에 비유된다. 서로 분리되지도 합쳐지지도 않아 합산(合散)이 완연(宛然)하다’고 하여 삼계의 원융함은 경상(鏡相)과 같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鏡相)이란 구체적인 조형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심삼관(一心三觀)의 천태사상을 거울의 기능에 비유한 것이다.

■중경록(宗鏡錄)

송의 연수선사가 엮은 <중경록>은 대승경론 60부와 3백인의 수행의 가르침과 말씀을 모은 것이다. 연수선사는 <중경록> 서문에서 ‘부처님의 대외와 경론을 상세하게 밝히기 위해 번잡한 글을 삭제한다. 요지를 찾고 방편으로 문답을 얻어 증명을 이끌어내고 일심을 들어 중을 삼는다. 만법을 비추기를 거울과 같이

하여 옛날에 지은 깊은 뜻을 뒤어서 원전의 깊은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경사(寶鏡寺) 설화

중국에서 불법 수학을 하던 지명스님은 하남성 낙양에 있는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를 찾아갔다. 백마사 주지스님은 지명스님을 보고 백마총의 주인이라며 백마총에 봉안되어있던 팔면경(八面鏡)을 주었다. 팔면경이 담겨있던 석함에는 지명스님이 전생에 마름 벌판 두 도인에게 동국 조선 총탄산 아래 팔면경을 묻고 법당을 향건하라는 수기를 받았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명스님은 팔면경을 받아들고 백마사에서 지내다가 30여년 만에 다시 귀국했다.

왕에게 그간의 사정을 고한 지명스님은 왕을 모시고 신하 10여명과 함께 해맞이 고을로 출발해 보살모양의 오색구름을 따라 내연산으로 갔다. 왕과 일행은 계곡에 있는 연못을 머무르고 그 중앙에 팔면보경을 봉안한 후 대가람을 지었다. 이 절이 바로 원진국사 원각국사 오양대사 등 훌륭한 스님들을 배출한 보경사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윤장대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사업성취
소원 성취
병자쾌차
학업 성취
임장소멸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육각명왕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성확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을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지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전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여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운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민국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상시방생순례도

주지 청 안 합 장

용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용문사 가는길
버스: 동서울대입구역(106 10~6 30, 40분간격)
3시간 10분 소요 → 역전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0분 오후 5시
이시리아(서울 → 예천) 오후 4시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 용문사
법보대찰

문의: (0584)655-8695(중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장안사

• 용문사 주자장에서 5분거리에 병행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처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